

建物壁畫의 保存

(求禮 華嚴寺 覺皇殿壁畫)

白 燦 圭

目 次

I. 머리말	IV. 壁畫의 頽落類型
II. 壁畫의 現況	V. 保存處理
III. 壁畫의 斷面構造	VI. 맺음말

I. 머리말

華嚴寺는 全羅南道 求禮郡 馬山面 黃田里에 위치한 사찰로 新羅 眞興王 5年 (544년)에 창건되었다고 전한다.¹⁾ 寺內에는 國寶 67號 覺皇殿을 비롯해 중요한 文化財가 다수 보존되고 있다.

覺皇殿은 丈六殿²⁾이 임진왜란으로 손실되자 1699年(肅宗 25年)부터 3년에 걸쳐 完工되었으며 최근 1940년까지 수차례의 重修가 있어왔다. 현재는 정면 7칸 측면 5칸의 2層 팔작지붕이며 1층이 147평, 2층이 134평인데 외부에서 보면 2層이지만 내부는 1, 2층이 통층으로 前後兩側面에 高柱가 세워져 있다.

文化財管理局에서는 華嚴寺의 文化財的 가치가 높이 평가됨에 따라 '85년부터 86년에 걸쳐 사찰경역에 대한 實測調査³⁾를 실시하게 되었다. 본 사업에서는 覺皇殿의 실측을 포함하여 壁畫, 丹青등의 文樣模寫가 진행되었는데 특히 壁畫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이 분산, 박락되었고 벽체에 균열이 심하여 상당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벽화의 보존조치는 120명의 畫工을 투입하여 86년 2월 15일부터 3월 1일까지 약 20일 동안 퇴락상태가 심한 벽화 90개소(약 70cm²)를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응급조치 하였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미비한 글로나마 그 당시에 調査된 것 가운데 壁畫 부분에 한정해서 현황 개관과 함께 壁畫의 頽落原因 및 그 種類, 그리고 保存處理의 방법을 발표하여 微力하나마 建物壁畫保存을 위한 기초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4)

II. 壁畫의 現況

覺皇殿의 건물 내외에 그려진 벽화는 모두 239개소가 되지만 조사 당시에는 이미 많은 부분이 퇴락, 유실된 실정이었다. 현존하는 벽화를 위치별로 살펴보면 1층 외부 包壁 64개소에 蓮花와 牧丹花가 교대로 도회되었고 건물 내부의 包壁에는 佛像들이 그려졌다. 건물의 2층 包壁(외부) 53개소에는 검은 자주색 蓮花가, 북측에는 흰 해오라기들이 배치되었고 내부 포벽 56개소에는 역시 佛像이 그려졌다. 그리고 건물내의 左右側 출입문 상단과 창방 상단에는 여러쪽으로 연결된 羅漢像과 飛天像이 배치되었다.

1) 一層外部 包壁畫

벽화의 형태는 사다리꼴이나 주변의 檐遮, 小累와 맞닿아 10개의 변을 지녔다. 貢包 사이의 包壁마다 조금씩 다른 구성법으로 蓮花 또는 牧丹畫를 매우 사실적인 형태로 생동감 있게 표현했으며 섬세한 筆致가 돋보인다. 꽃들은 左右대칭적인 구도를 이루면서 각각 花盆에 담어져 있는데 이것은 주어진 空間의 한계성을 고려하다 보니 圖式的으로 처리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벽면의 배치구도를 수직선상으로 보면 삼단으로 나뉘어 있는데 하단에는 花盆과 탐스럽게 활짝핀 연꽃을, 중단에는 半開한 꽃을 상단에는 한 개의 꽃봉오리를 배치했다. 中央의 꽃을 중심으로 左右側에도 역시 꽃봉오리를 아래 위로 그리고, 반개한 꽃을 중간에 놓았으며 꽃과 꽃 사이의 여백에는 녹색의 잎을 배치했다.

花盆은 흰색의 직선과 곡선을 사용해서 幾何學的인 무늬로 장식되었다.

이 벽화들은 日帝때 模寫된 것과 모사되기 이전의 그림이 함께 현존하고 있으나 그림의 構成은 거의 동일하다. 다만 옛 그림은 녹색계의 잎이 많이 남아 있는 반면에 모사된 것은 꽃과 花盆의 흰색만 남겨 놓고 줄기와 잎은 탈색이 심한 형편이다. 모사된 벽화는 밑에 “昭和十五年十月模造”라고 銘記되어 있어서 1940년 10월에 작업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또한 模寫者는 林泉선생이 담당했다고 한다.⁵⁾ 기존의 벽화에는 상단에 있는 꽃봉오리에서 金粉(또는 金薄)이 발견되었는데(No-1-0-16)⁶⁾ 건물 내부 벽화와 천정 개판에 그려진 국화⁷⁾등 여러 곳에서도 함께 발견되었다. 이러한 흔적들은 당초 覺皇殿을 창건하면서 얼마나 많은 정성을 기울여 장엄했는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牧丹花를 그린 벽화도 수직선상에 牧丹花를 상단으로 각각 1송이씩 배치하여 蓮花圖의 벽화에서와 같이 동일한 심단구성법을 따르고 있다.

2) 二層壁畫

꽃의 배치는 1층의 包壁畫와 같은 방법을 따르고 있는데 中央 수직선상의 맨 위에는 흰색의 연꽃 꽃송이가 그려졌고 가운데에 暗赤色의 반개한 연꽃이 금방

이라도 활짝 필 듯이 떠 받쳐져 있으며 맨 아래에는 활짝핀 큼직한 연꽃이 꽃 단지를 덮고 있는데 이 左右側에는 흰색과 적색의 연꽃봉오리 6개와 반개한 꽃 2송이 그리고 커다란 磊綠色 荷葉이 싸고 있다.

2층 후면에는 각 包壁마다 각기 다른 자세를 취한 흰 색의 해오라기들이 그려졌다. 벽화의 일부는 完全히 탈락 유실되고 나머지도 退色이 심하여 해오라기의 형태만 잔존해 있는 실정이지만 매우 사실적인 수법으로 도회되어 있음을 엿 볼수 있다.

3) 内部 包壁畫(如來坐像)

如來像들은 手印의 변화가 대개 세가지 종류로 구분되나 거의 같은 자세로 반복하여 그려져 있다. 머리와 몸에는 각각 둥근 光背가, 身光에는 적·녹·흑·황·백색등의 五色身光을 불규칙하게 표현했고 頭光은 적흰색의 선을 두루고 안에는 녹색으로 채색했다. 몸에는 右肩偏袒式의 붉은색 法衣를 걸쳤으나 흔히 볼수 있는 불상조각에서의 着衣法과는 달라 어깨부분이 通肩式으로 덮혀져 있고 오른팔만이 노출된 獨特한 형상을 띠고 있다.

螺髮의 머리에는 肉髻가 높이 솟아 있으며 가운데에 흰색의 中心髻珠가 있고 원으로된 頂上髻珠가 나타나 있다.

얼굴에는 보통 인물상에서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둥근 눈썹과 가늘게 뜬 실눈, 평범한 사실적 표현이며 목에는 三道가 있으나 무릅 아래의 대좌는 분명치 않다. 이 그림들은 외부의 모사 벽화와 같은 시기에 다시 그려진 것으로 보여지는데 건물내부(아래층 후면 우측) 네 번째 包壁畫는 原畫라고 추정된다. 改彩된 불상 자태는 原畫로부터 많이 변모한 것을 볼 수 있다.

4) 内部 昌枋위 壁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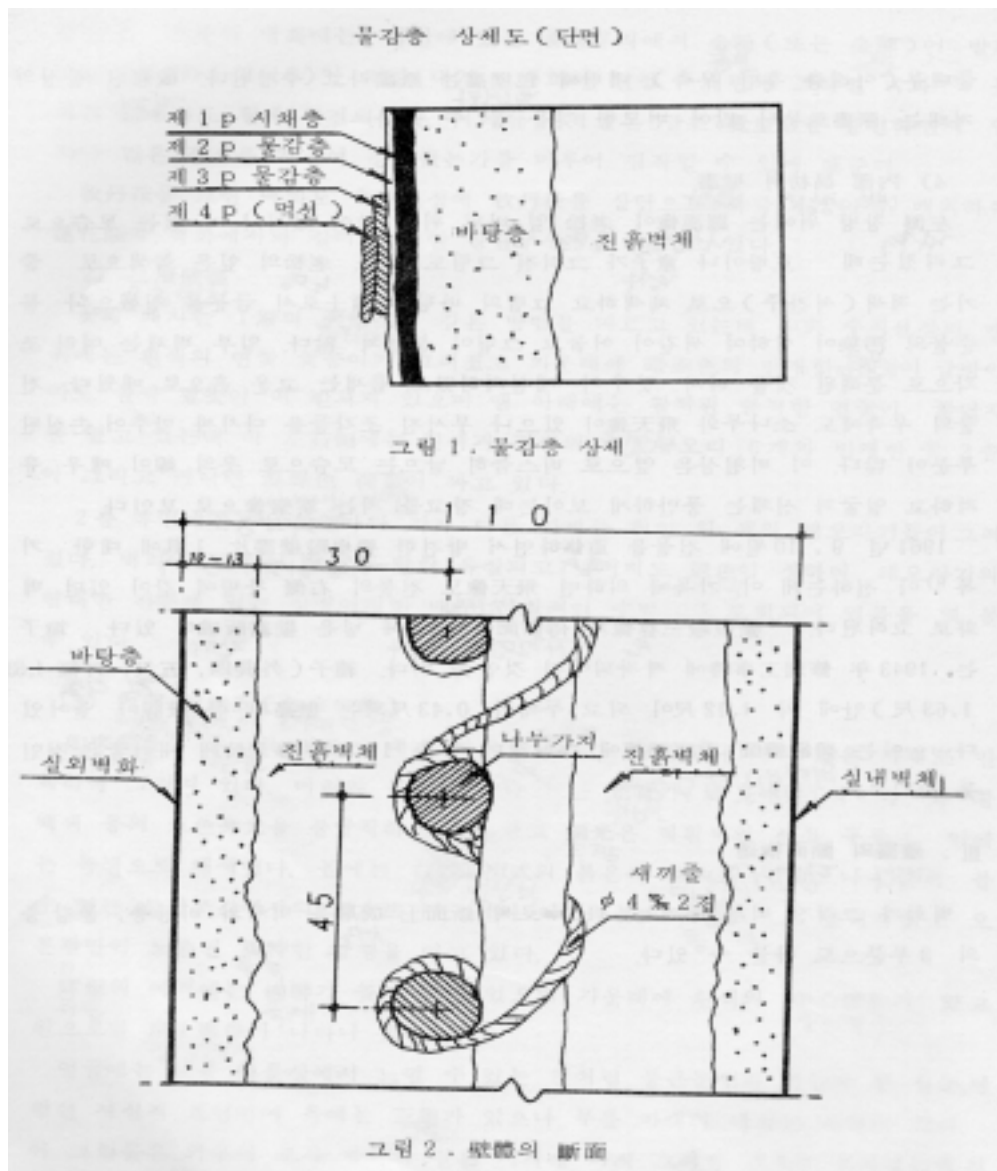
左側 창방 위에는 羅漢像이 老松 옆 바위 위에 앉아 있거나 서 있는 모습으로 그려졌는데 호랑이나 童子가 그려진 그림도 있다. 老松의 잎은 녹색으로 줄기는 적색(석간주)으로 채색하고 그림의 바탕은 黃土로서 금분을 칠했으나 불순물의 汚染이 심하여 색깔이 어둡고 그림이 분명치 않다. 일부 벽체는 여러 조각으로 분해된 것을 다시 맞추어 재설치 하였고 그림이 분명치 않다. 일부 벽체는 여러 조각으로 분해된 것을 다시 맞추어 재설치하였고 틈새는 고운 흙으로 메웠다. 건물의 우측에도 소나무와 飛天像이 있으나 부서진 조각들을 다시짜 맞추어 손실된 부분이 많다. 이 비천상은 옆으로 비스듬히 날은 모습으로 옷의 線이 매우 유려하고 얼굴과 신체는 풍만하게 보이는데 장고를 치는 泰樂像으로 보인다.

1961년 9, 10월에 건물을 重修하면서 발견한 覺皇殿壁畫片 1具에 대한 기록⁸⁾

이 전하는데 이 기록에 의하면 飛天像도 건물의 右側 창방에 같이 있던 벽화로 고려된다.. “覺皇殿三尊像左 侍前面에 箱子에 넣은 壁畫版破이 이 있다. 箱子는 1943年 修理工事時에 제작되어진 것인 듯 하다. 子(外長四, 五尺. 外幅 1.63 1.63尺)안에 약 1.12尺이 되고 두께가 0.43尺되는 壁畫의 한 破板이 들어있다. ……이는 碧巖神師 重建功德에 그려졌던 것을 1943년 修理時에 내려놓은 것인 듯 하다”.

III. 壁畫의 斷面構造

벽화가 그려진 벽의 두께는 110mm로써 斷面上 成層을 벽체와 바탕층, 물감층의 3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1) 壁體(support)

그림이 있는 包壁은 밑변이 92~143cm, 높이가 66~178cm에 이르는데 건물의 중앙칸에 위치한 것은 그 크기가 조금 작은 반면에 左右側과 양단으로 갈수록 증가됨을 보이고 있다. 벽체 단면의 중심에는 지름 1.5~2cm의 나무 가지를 약 4~5cm의 간격으로 설치했는데 나무와 나무는 겹으로 엮은 새끼를 이용하여 연결시켰다. 또한 나무가지에는 진흙으로 약 8cm두께의 初壁을 치고 다시 고운 모래와 수사를 섞어서 그 위에 그림을 그리기 위한 바탕층을 10~13mm 두께로 조성했다.

2) 바탕층(intonacco)

바탕층은 진흙 벽체 위에 그림을 그리기 위해 마련한 고운층으로서 건물내 昌枋 위에 벽화는 黄土를 바르고 외부 포벽의 벽체들은 고운 모래와 수사를 섞어 마련했다. 1940년 이전에 제작된 포벽은 고운 모래를 사용했으나 그 후에 제작한 것은 모래와 수사를 사용했다. 模寫를 한 벽체의 바탕도 원래의 벽체를 완전히 제거한 뒤 새로 조성한 것과 기존 벽체 위에 얇게 바탕층만 덧바른 것의 두가지로 구분되었다. 후자의 것은 건물 1층 후면에 인접한 언덕과 숲, 음지등의 습한 환경으로 인해 벽화의 退色은 물론 대부분의 바탕층의 接着力을 상실하여 들뜨거나 탈락되어 버렸다.

3) 물감층(paint layer)

벽화에 사용된 안료는 벽체에 그림이 도회된 이후의 보존상태로 보아 두 종류로 대별된다. 模寫된 그림과 원래의 벽화에 사용된 안료는 각각 그 수명을 달리 했는데 특히 覺皇殿 외벽에 模寫된 벽화들은 몹시 탈색되어 뇌록을 사용한 부분의 형체가 거의 남아 있지 않았다. 그러나 이보다 먼저 그려진 옛 벽화에서는 그 선명도가 떨어지긴 했으나 색채가 어느 정도 保存되어 왔다. 이러한 사실은 기존 벽화의 제작 당시에 쓰인 안료와 접착제가 自然風化作用에 대한 저항력이 클 뿐 아니라 材料의 사용기술도 우수했다는 것을 짐작케 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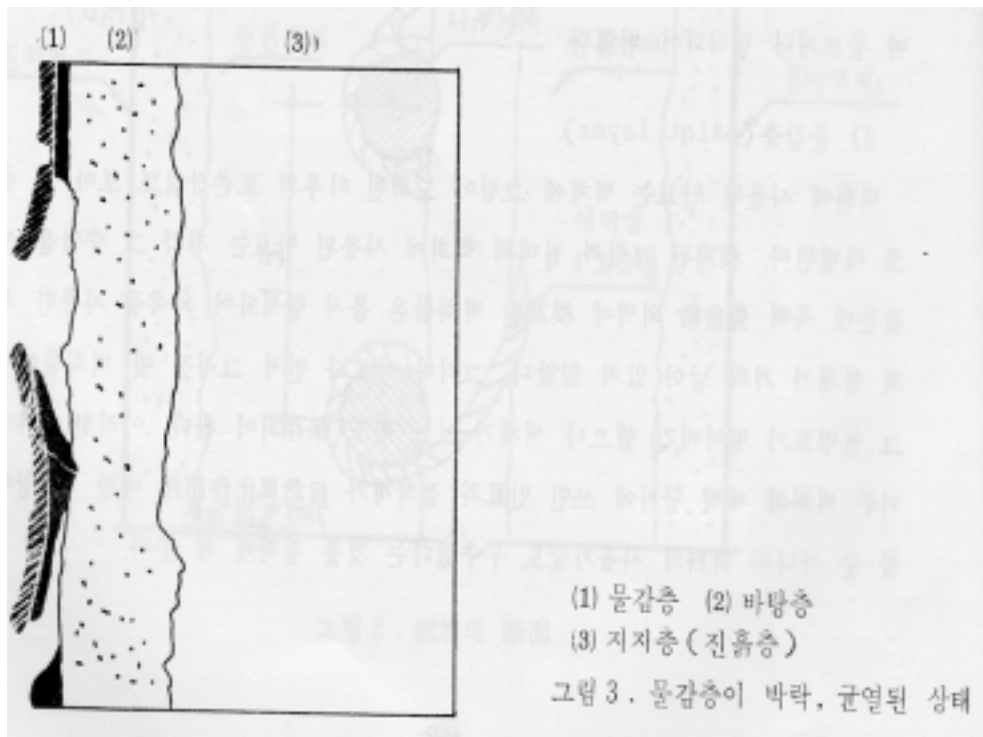
IV. 壁畫의 頽落類形

壁畫에 발생된 頽落現象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되었다. 첫째는 벽화가 도회된 이후 오랜 시일에 걸쳐 겪은 風化作用에 의한 형태이며 둘째는 建物の 木構造가 頽落되면서 수반되는 構造的 變位에 의한 것 끝으로 건물의 이용자와 여기에 서식하는 動物(곤충, 조류 등)에 의한 손상이다. 이 현상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風化作用에 의한 頽落現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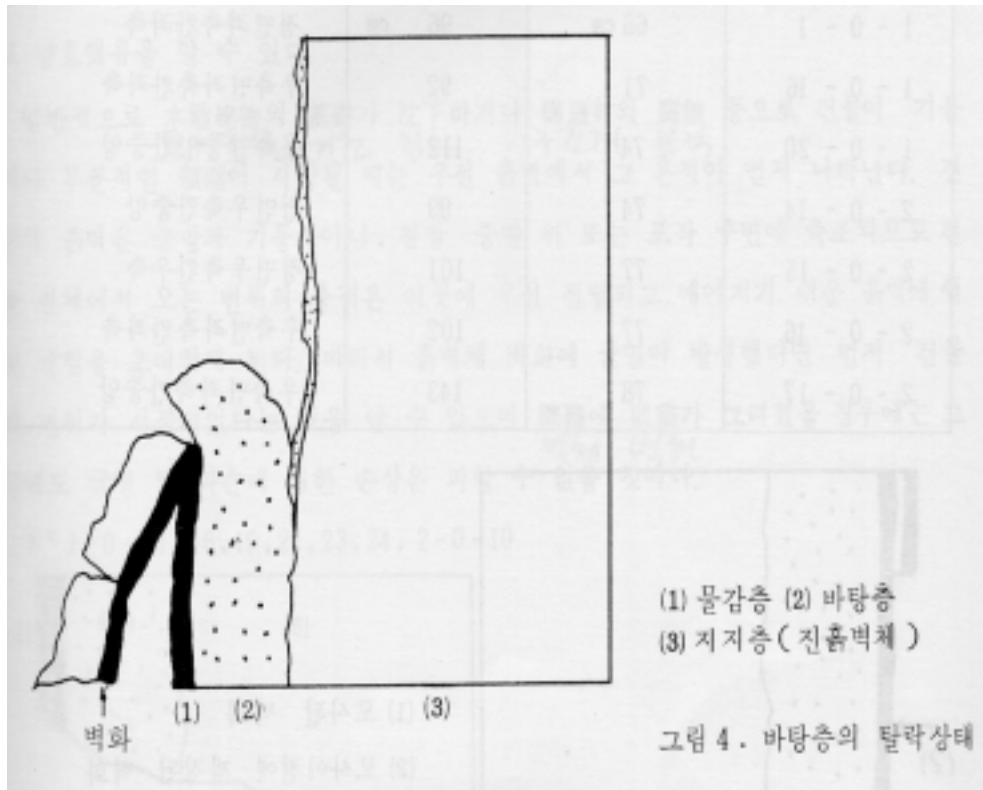
이 현상은 1940年 이전에 제작된 대부분의 벽화에 나타나고 있었다. 이 벽화들은 그림이 그려진 이후, 오랜 시일에 걸쳐 외부의 濕氣를 吸收, 배출하거나 빗물이 직접 닿아 습하게 되었다가 다시 乾燥되는 등 自然의 비·바람과 光線 등으로 벽화표면이 자연히 마멸된 현상이다. 이러한 벽화의 자연적인 마모상태는 1940년대에 模寫한 벽화의 頽落狀態와 비교하여 볼 때 그 이전에 제작된 벽화의 제작시기를 암시해 주므로 벽화의 편년을 설정하는데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다.

① 물감층의 균열 및 박락 : 건물의 내부 벽화에서는 많이 발견되지 않지만 외부의 벽화들은 대부분이 균열되거나 박락되었다. 이것은 물감층이 흙바탕과의



接着力을 상실하고 박락되거나 균열되므로서 물감층 일부가 탈락되고 박락된 부위와 균열된 틈 사이로 대기 중의 濕氣나 빗물이 스며들어 頽落을 가속시킨 결과로 볼 수 있다. 頽落現象은 외부 벽화 가운데 건물 左側壁의 벽화가 특히 심했다. (2- 0 - 46부터 2- 0 - 56 까지)

② 바탕층의 탈락 : 바탕층이라 함은 그림을 도회하기 위해 고운 모래와 진흙, 수사등을 밀풀이나 해초를 끓여서 만든 점착제로 얇게 바른 층이다. 이 바탕층은 벽체에 외가지(설외, 늘외)를 새끼로 엮은 후 진흙과 짚 등을 섞어 개어서 초벌을 하고 어느 정도 건조·균열이 발생되면 재벌까지 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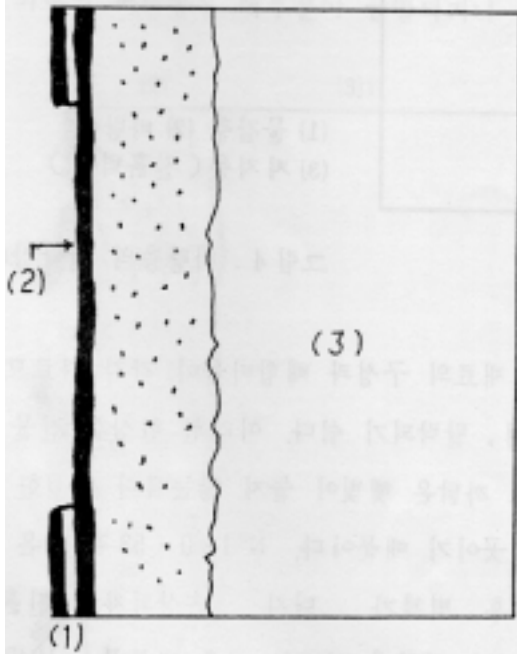


보통 바탕층과 심벽은 흙의 입자등 재료의 구성과 배합비율이 각각 다르므로 이에 따라 수축과 膨脹이 일어나 분리, 탈락되기 쉽다. 이러한 현상은 건물 北側 外部 壁畫에 주로 나타나 있는데 그 까닭은 햇빛이 들지 않는데다 인접한 뒷산 숲으로부터 항상 濕氣를 받기 쉬운 곳이기 때문이다. No 1-0-53과 같은 벽화는 바탕층이 完全히 탈락되어 模寫이후 벽체가 다시 손상도자 진흙으로만 미장을 하기도 했다. 특히 이 현상이 심하게 발생한 곳은 대부분 1940년경에 보수한 벽화로서 미장방법이 옛것과 같지 않았음을 알려준다.

③ 덧바른 模寫層의 탈락 : 그림이 그려진 바탕층이 심벽체로부터 분리, 탈락 되듯이 模寫圖를 그린 층이 이것보다 오래된 原壁畫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모사벽화가 떨어져 유실됨으로서 벽화가 2겹으로 된 것과 모사층만으로 된 것이 구별되었다. 모사층의 두께는 약 3mm가 되며 관련 벽화는 1-0-7, 11, 13, 16, 19, 22, 23, 24, 25, 26등 10개소가 된다.

포(붙)벽의 크기

지정번호	높이	밀 변	비 고
1 - 0 - 1	66 cm	96 cm	정면 좌측칸좌측
1 - 0 - 16	71	92	우측면 좌측칸좌측
1 - 0 - 20	74	112	우측면 중앙칸중앙
2 - 0 - 14	74	99	정면 우측칸중앙
2 - 0 - 15	77	101	정면 우측칸우측
2 - 0 - 16	77	102	우측면 좌측칸좌측
2 - 0 - 17	78	143	우측면 좌측칸중앙



- (1) 모사된 벽화
- (2) 모사이전에 제작된 벽화
- (3) 지지층(진흙벽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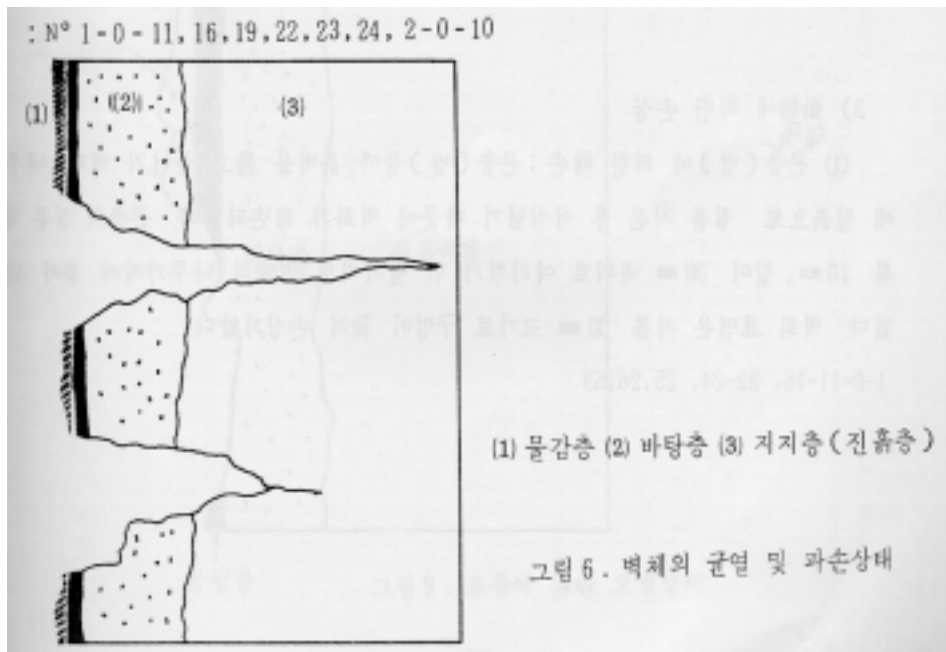
그림 5. 모사층의 탈락상태

2) 建物の 頽落에 의한 變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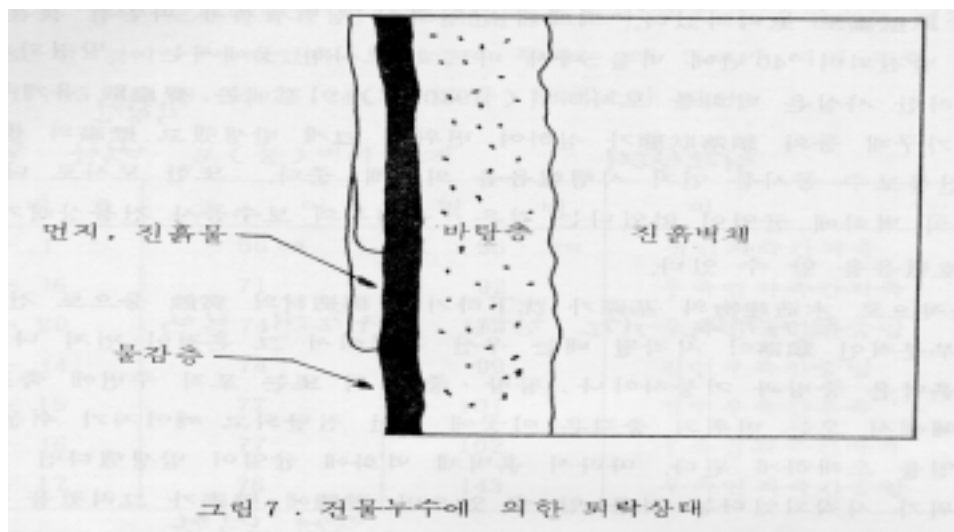
① 壁體의 균열 파손 : 覺皇殿 懸板 뒤에 있는 포벽은 균열이 크게 발생되어 파손이 심한데 이곳의 벽화는 '40년에 모사된 작품이 아니라 그 보다는 매우 오래된 原壁畫로 고려되었다. 벽체가 균열되어 심벽체까지 파손된 것은 원 벽화에서만 발견되며 '40년에 벽을 다시 바르고 모사한 곳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벽화를 모사하기(1940년) 이전에는 覺皇殿 옥개부의 포작, 연목, 가구재 등의 頽落狀態가 심하여 변위가 크게 발생했고 壁畫의 模寫作業 직전에 건물보수 공사를 먼저 시행했음을 의미해 준다. 또한 모사로 다시 제작된 대부분의 벽화에 균열이 없었다는 것은 옥개부의 보수공사 건물상태가 대체적으로 양호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木造建物の 基礎가 沈下하거나 構造材의 腐蝕 등으로 建물이 기울거나 부분적인 頽落이 시작될 때는 우선 흙벽에서 그 흔적이 먼저 나타난다. 거물의 흙벽은 중방과 기둥사이나, 창방·중방 위 또는 포작 주변에 축조되므로 건물 전체에서 오는 변위의 충격은 이곳에 우선 전달되고 깨어지기 쉬운 흙벽에 쉽게 균열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흙벽체 벽화에 균열이 발생했다면 먼저 건물의 변위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으며 壁體에 壁畫가 그려졌을 경우에는 그림에도 균열 및 파손에 의한 손상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 No 1 - 0 - 11, 16, 19, 22, 23, 24, 2 - 0 -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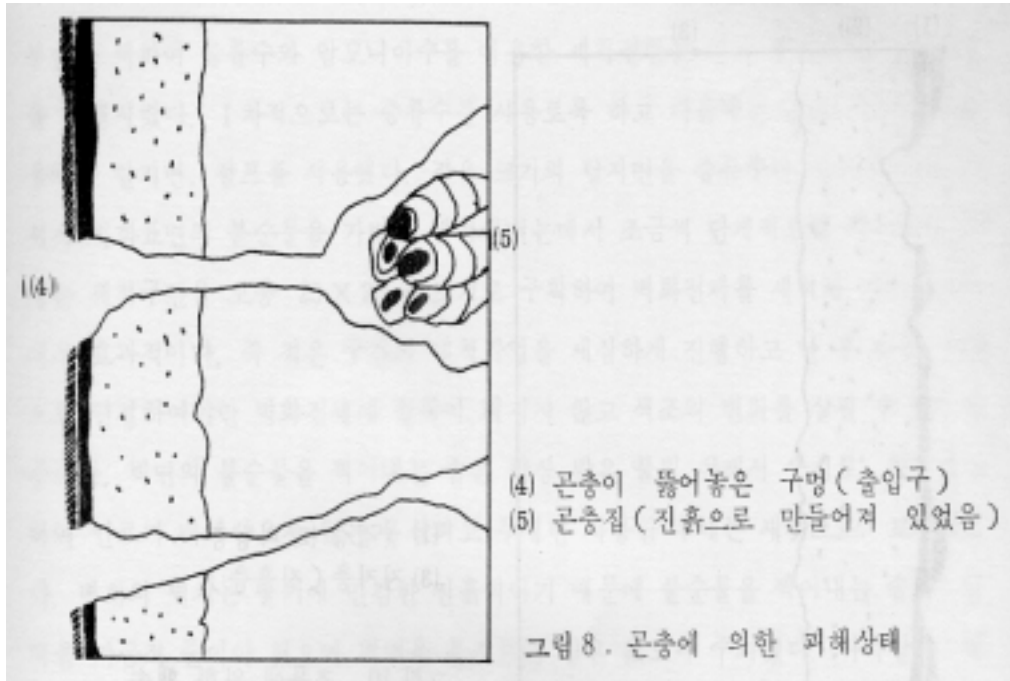
② 漏水에 의한 頽落 : 지붕의 漏水로 먼지, 흙 등이 빗물에 섞인채 벽면으로 흘러들어 벽화 표면이 오염되고 頽落되었다.(N°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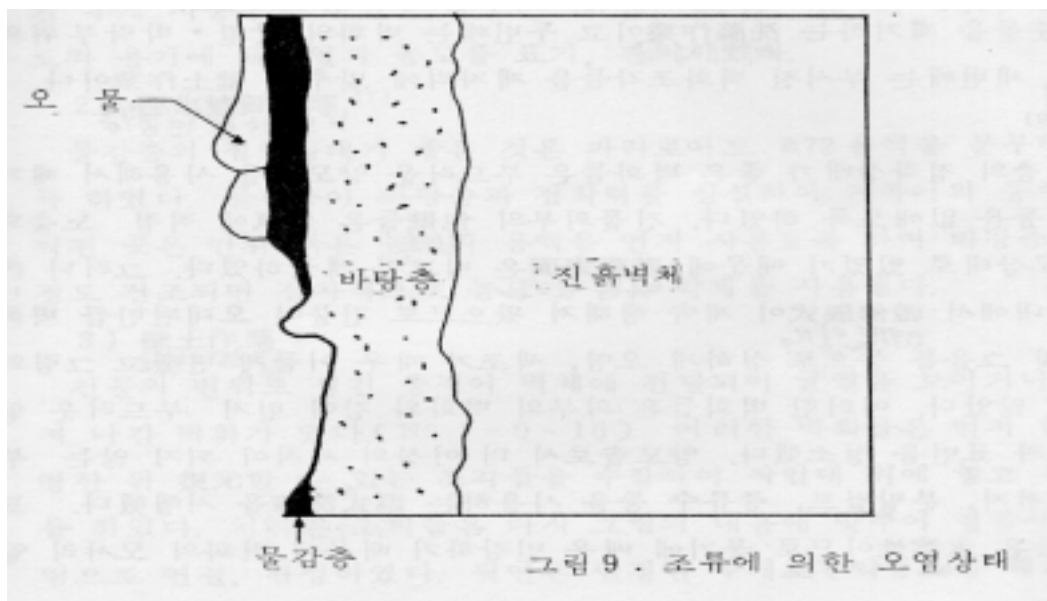
3) 動物에 의한 손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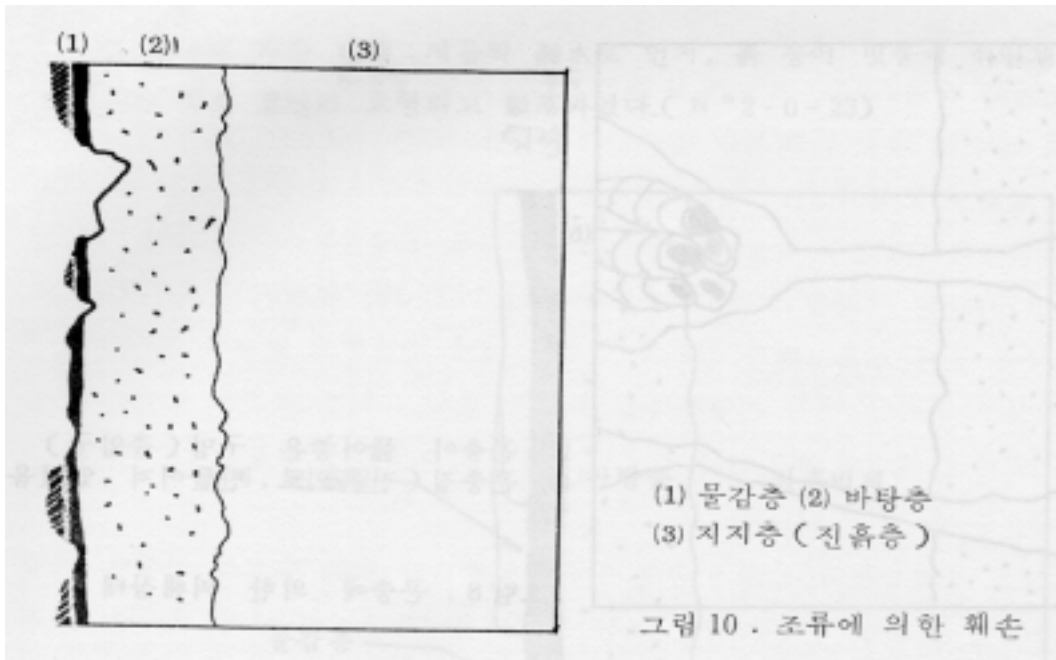
① 곤충(벌)에 의한 훼손 : 곤충(벌)들이 흙벽을 뚫고 들어가 벽체 내부에 진흙으로 집을 지은후 서식했기 때문에 벽화가 훼손되었다. 곤충의 집은 지름 10mm, 길이 30mm 내외로 여러개가 한 덩어리로 벽속의 나무가지에 붙어 있었다. 벽화 표면은 지름 30mm 크기로 구멍이 뚫려 손상되었다.

1-0-11-16, 22-24, 25, 26, 53



② 鳥類에 의한 손상 : 지붕의 연목개판 위에(지붕속) 비둘기가 살면서 배출된 오물이 벽화에 크게 오염되었고 또한 이들의 활동으로 벽화표면은 많은 부위가 긁혀서 손상을 입었다.(2-0-13, 38)





V. 保存處理

이 작업은 크게 세단계의 방법을 적용하여 진행되는데 첫째는 오랫동안 벽화 표면에 오염된 불순물을 제거하는 洗滌作業이고 두 번째는 벽화의 균열·박락 부위의 硬化, 接着處理, 세 번째는 부서진 벽화조각들을 제자리에 맞추는 壁土作業이다.

1) 洗滌作業⁹⁾

물감층과 바탕층의 접착상태가 좋은 벽화들은 부드러운 양모솔을 사용해서 제거하기 쉬운 먼지 등을 없애도록 하였다. 건물외부의 包壁들은 外氣에 직접 노출되어 자연적인 마모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壁畫表面은 비교적 깨끗하였다. 그러나 内部壁畫들은 전각내에서 禮佛儀式이 계속 행해져 왔으므로 건물이 오래된만큼 벽화 표면에는 먼지 및 그을름 등으로 심하게 오염, 색조가 매우 어둡게 변했고 그림의 내용마저 분명치 않았다. 이러한 벽화들은 외부의 벽화와 같이 먼저 부드러운 양모솔로 벽화주변과 표면을 청소했다. 양모솔로서 더 이상의 세척이 되지 않는 부분은 탈지면, 화선지, 분말펌프, 증류수 등을 사용하는 濕式洗滌을 시행했다. 보통 佛畫의 안료들은 水溶性이므로 물기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벽화의 모서리 일부분을 택하여 증류수와 암모니아수를 이용한 세척실험을 먼저 실시해 본 후 작업을 진행시켰다. 1차적으로는 증류수를 사용토록 하고 다음에는 암모니아수 5% 용액과 탈지면, 펄프를 사용했다. 작은 크기의 탈지면을 증류수나 암모니아수에 적셔서 벽화표면의 불순물을 가볍게 제거해내는 데서

조금씩 단계적으로 처리했다. 이때는 세척구간을 보통 25×25cm 크기로 구획하여 벽화전체를 세척해 가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다. 즉 적은 구간의 세척작업을 세심하게 진행하고 난 후 다음 구간으로 연결하여야만 벽화전체에 얼룩이 퍼지지 않고 색조의 변화를 살필수 있기 때문이다. 벽면의 불순물을 찍어내는 솜은 항상 밝은 불빛 아래서 수시로 확인 검사하여 안료가 배어나오지 않는가 살피고 두세번 사용한 후에는 새것으로 교체하였다. 벽화의 벽체는 물기에 민감한 진흙벽이기 때문에 불순물을 찍어내는 솜의 압력을 가급적 줄여야 했으며 벽면을 문지르는 일은 없도록 주의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거 되지 않는 부분은 암모니아수에 적신 분말펌프를 1cm두께로 벽에 밀착시킨 후 적정한 시간이 흐른 다음 떼어내어 불순물을 제거토록 하였는데 ¹⁰⁾ 얼룩이 남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공정이 따랐다. 파라로이드는 사용하기 며칠 전부터 시험용 튜브엔에 담가두고 자주 저어줌으로써 충분히 용해된 후에 사용토록 하였고 농도는 50%, 25%, 12%, 6%, 3%로 분류하여 별도의 용기에 제조일과 농도를 표기, 관리하였다.

2) 硬化接着處理¹¹⁾

물감층의 접착상태가 좋은 것은 파라로이드 B 72용액을 분무하여 퇴락을 방지토록 하였다. 물감층이 바탕층과 접착력을 상실하여 거북이의 등처럼 균열상태로 박락된 곳은 먼저 묽은 농도의 용액을 먼저 사용토록 하여 바탕층의 처리면이 어느 정도 건조되면 점차적으로 농도가 짙은 약제를 사용하였다.

3) 壁土作業

건물의 변위로 생긴 충격이 벽체에 전달되어 균열을 보이거나 흠덩어리가 떨어져 나간 벽화가 있다. (No 1- 0 - 16) 이러한 벽화들은 먼저 현존상태를 寫眞 촬영한 후 復元할 수 있는 조각들을 수집하여 작업대 위에 놓고 부분별로 硬化處理를 하였다. 처리된 조각들은 다시 그림의 내용에 맞추어 접착시킨 다음 한쪽의 그림으로 연결, 완성하였다. 뒷면은 일정한 두께로(약 2cm) 제거 조정하였으며 평탄한 판넬로 제작하여 원래의 위치에 복원 설치하였다. 벽체의 뒷벽은 모래, 카세인용액, 아크릴 에말존을 重量比 10 : 1 : 1로 제조 사용했다. 원래의 위치에 복원시킬 때는 벽면을 3일간 지당시켜 벽화조각들을 붙여 만든 판넬이 벽체에 밀착되도록 했다.

VI. 맺음말

우리나라의 옛 壁畫들이 가장 많이 現存하는 곳은 역시 유서깊은 寺刹에서 가능 할 것이다. 그러나 건물만큼이나 오랜 시일을 지나온 옛 벽화들을 현재에

찾아 보기란 그다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覺皇殿室內壁畫와 같이 重修할 당시 다시 그린 벽화들마저도 소멸되어 가고 있음은 안타까운 실정이다.

覺皇殿의 羅漢像과 飛天像은 여러 조각으로 부서진 것을 先人들이 정성스럽게 진흙으로 붙이고 메워서 제자리에 復元시킨 例이다. 그나마 한 조각의 흠덩어리에 남아 있는 壁畫라도 保存시키려고 노력한 옛 선인들의 정성을 대할 때면 새삼 고마움을 느끼게 된다.

本橋에서는 壁畫模寫作業을 위해 짧은 기간내에 응급조치한 보존처리방법을 간단히 기술해 보았다. 여러 가지로 미비한 곳이 많으리라 여기면서도 차후 建物壁畫의 保存을 위해 필요한, 壁畫의 所在 및 現況 파악과 保存科學的인 고찰, 建築, 美術史的인 조사등의 基礎資料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脚 註

- 1) 華嚴寺의 開創과 重建에 의하면 初創과 創建主에 관해서는 정확한 역사적 기록이 없다. 다만, 板本史蹟에는 신라진흥왕 5년 甲子(서기 544년)에 인도승 綠起祖師가 세웠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輿地勝覽」에는 時代는 분명치 않으나 煙氣라는 스님이 세웠다고 전해지고 있다. 「求禮續誌」에는 진흥왕 4년 甲子에 연기조사가 세웠으며, 이곳 화엄사에는 三千僧侶를 入住케 했다고 하였다.
- 2) 新羅 文武王 10년(670) 義湘大師가 華嚴寺를 重修하면서 3層 4面 7間의 丈六殿을 건립하고 돌레를 石刻華嚴經으로 돌렸다고 하며 현재 이 石刻으로 추정되는 파편들이 화엄사에 보관되고 있다.
- 3) 求禮華嚴寺實測調查報告書, 1986, 文化財管理局 발간
- 4) 필자는 壁畫保存處理의 방법소개를 위하여 文化財技術者教材에 '85 ~ '89 현재까지 년차적으로 게재하고 있다. 관계보고서 ; 浮石寺祖師堂壁畫의 保存處理('85), 建物壁畫의 解體, 移轉과 그의 保存('89).
- 5) 覺皇殿 1층포벽(외부)에 “昭和十五年日月模造”, “林泉”의 黑書名이 있음
- 6) 벽화의 일련번호 지정 : 많은 벽화의 調査 및 保存處理를 위하여 외부벽화 121개소와 내부 벽화 7개소에 임의로 일련번호를 부여했다. 예) A - B - C
A : 건물층수 B : 건물내, 외 (O : 외부, I : 내부)
C : 건물 전면 좌측에서 우측 방향 순서의 일련번호
- 7) 현재의 覺皇殿天障과는 다른 板材로서 원래의 天障材가 아닌가 생각된다. 東國大學校 경주캠퍼스의 박물관에 보관되고 있음. 사진 18 참조.
- 8) 求禮 華嚴寺實測調查報告書 p. 142.
- 9) P. Mora & P. Philipport.

Conservation of Wall painting. - Cleaning and disinfection - p. 282.

10) 白燦圭, 浮石寺祖師堂壁畫의 保存處理 1985. 保存科學研究 6집, 文化財研究所.

11) 前掲書 p. 216. - Fixation and consolidation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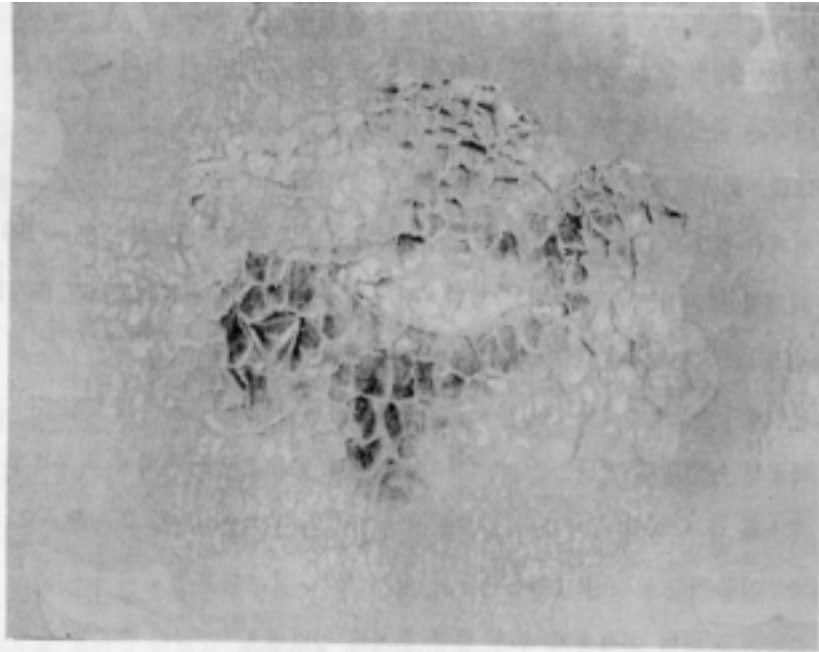


사진 1. 保存處理前 : 물감층이 균열, 박락상태에 있음. 꽃잎의 물감층이 밑의 흙바탕과 분리되어 탈락직전의 상태. (안료층과 흙바탕층을 각각 硬化시키기 위해 paraloid B.72 1.5%를 분무한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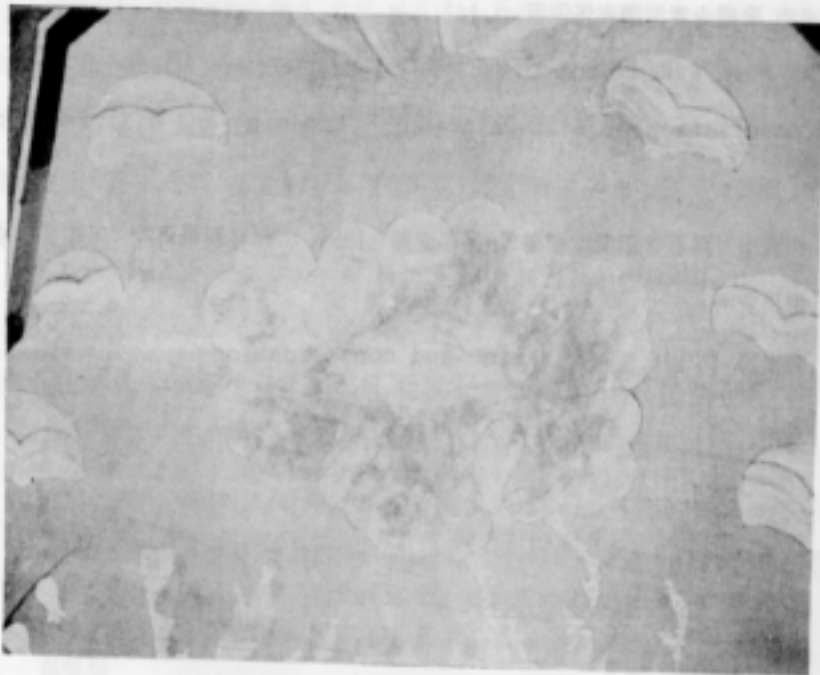


사진 2. 保存處理後 : 약 3회에 걸쳐서 경화처리한 뒤 물감층을 接着處理한 상태 (24 시간 경과후 물감층과 흙바탕이 각각 경화된 상태에서 경화, 접착제를 25% 까지 제조, 주입하며 압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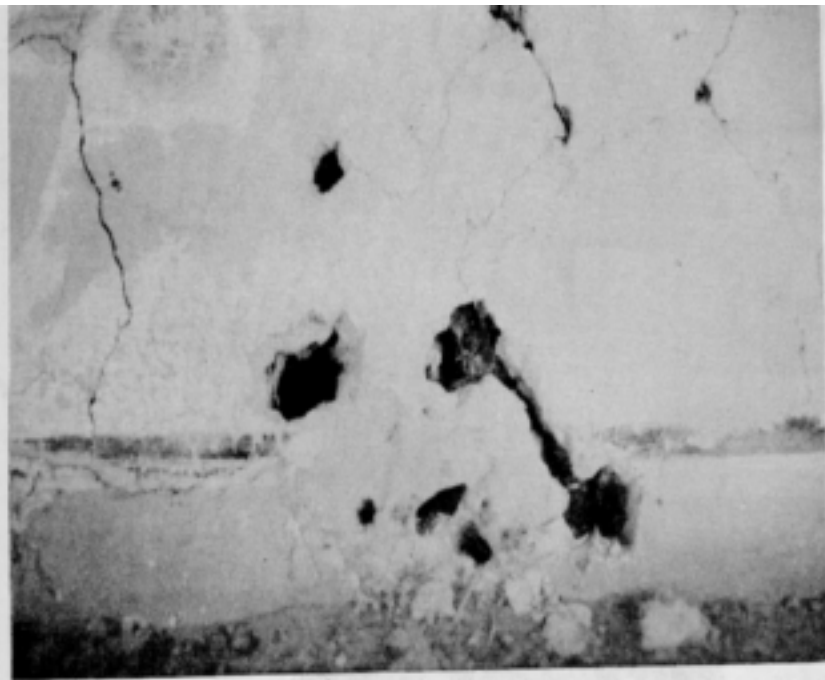


사진 3. 곤충이 벽화표면으로 부터 속으로 뚫고 들어가 벽화가 훼손된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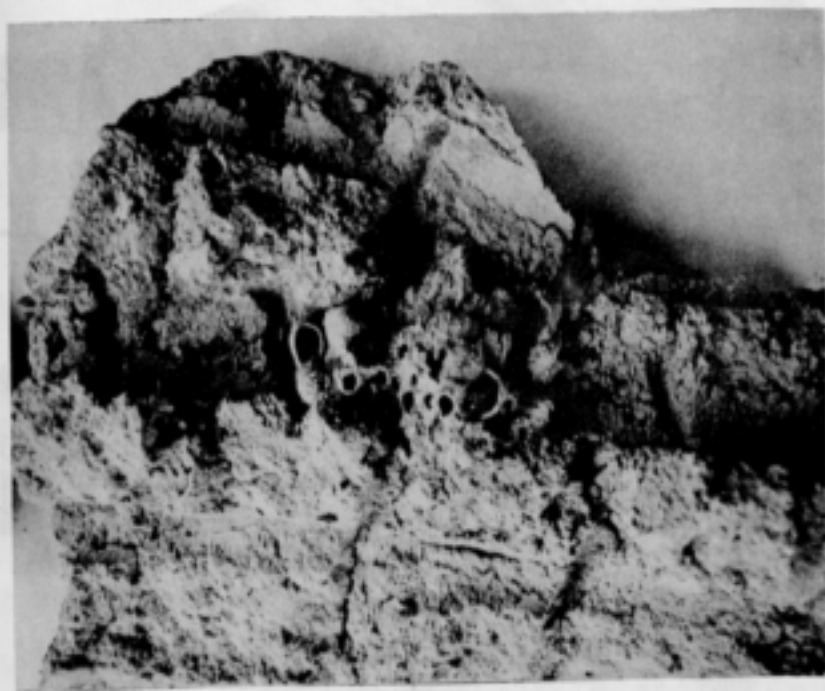


사진 4. 탈락된 벽체 조각과 유충집 : 벽화표면으로 부터 곤충이 벽체를 뚫고 들어가 집을 짓고 서식한 흔적



사진 5 . 模寫層의 탈락상태 (건물 후면)



사진 6 . 벽체의 균열, 파손상태 : 건물의 퇴락과 변위에 의한 충격이 벽화에 전달되어 균열 파손되었음 .



사진 7. 조류에 의한 피해상태 : 비둘기의 서식으로 벽화 표면이 오물로 오염되고 벽체가 허졌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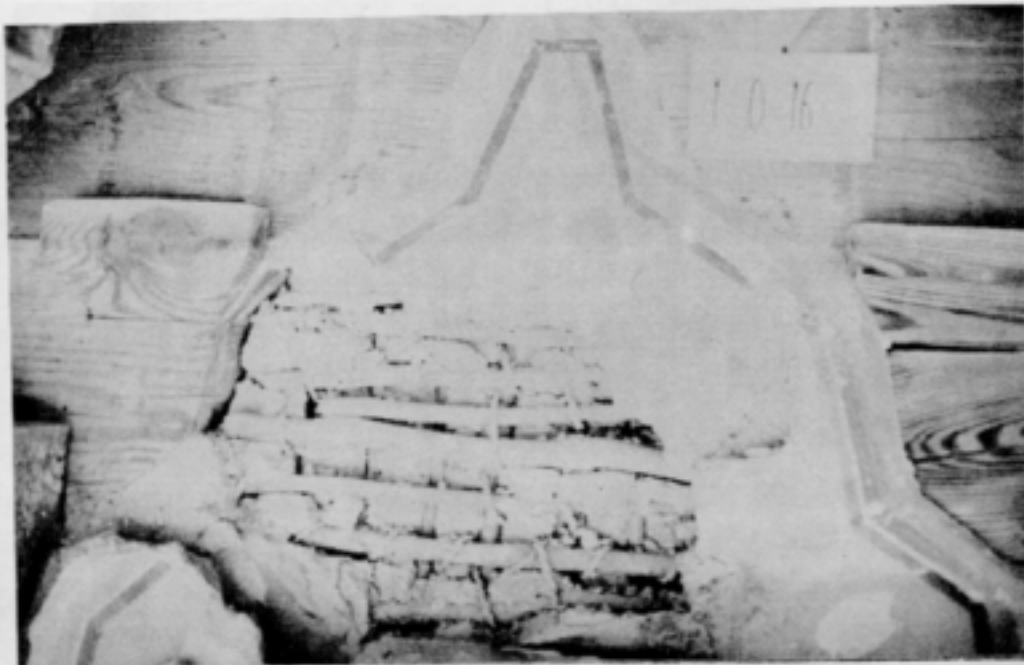


사진 8. 벽체의 파손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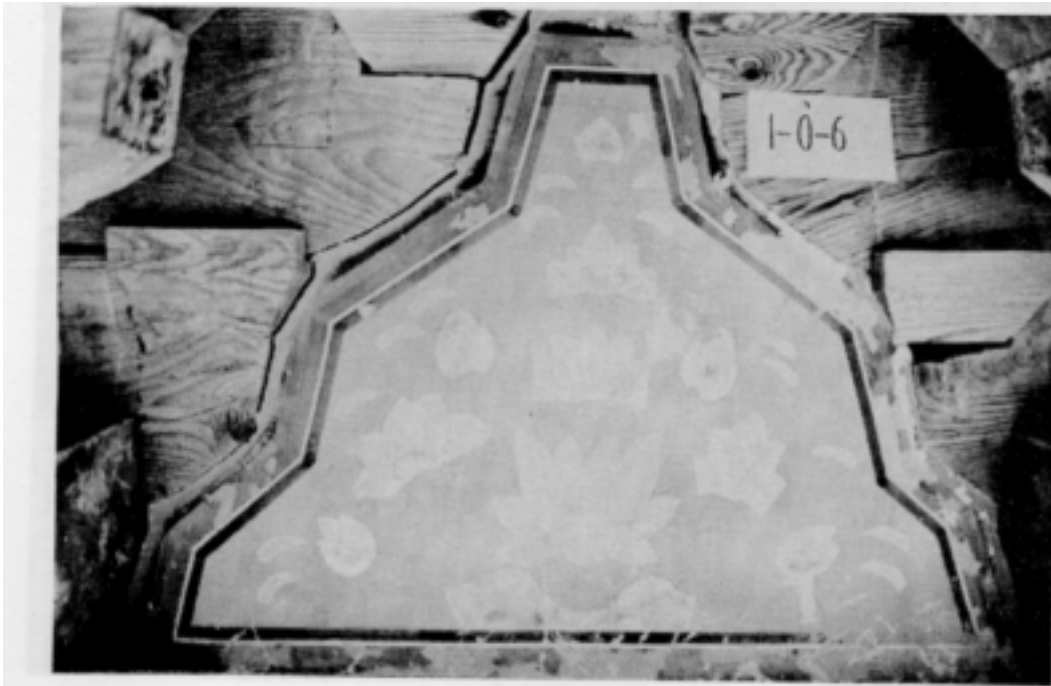


사진 9. 1층 모사도 : 1940년에 새로 제작된 것임.



사진 10. 2층 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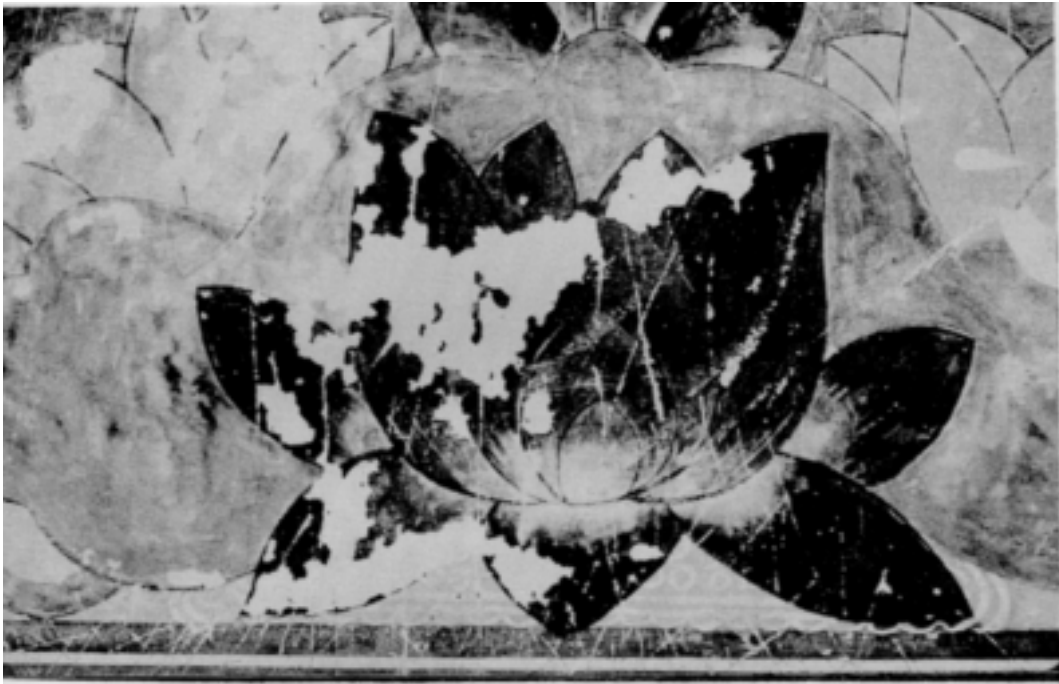


사진 11 . 사진 10 의 세부 (N ° 2 - 0 - 24 벽화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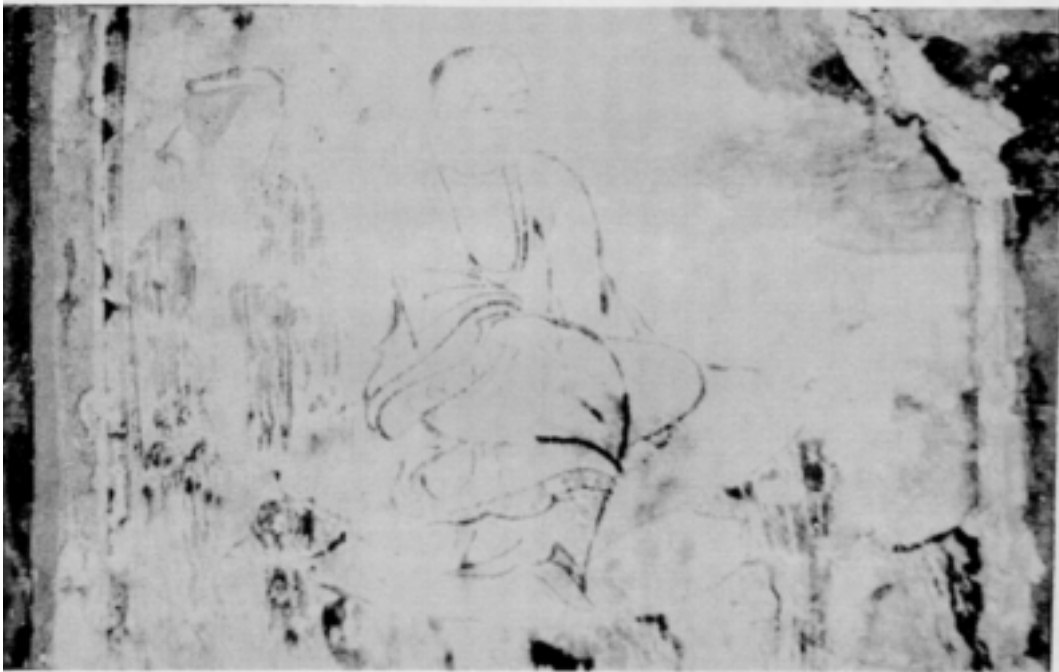


사진 12 . 건물내부 벽화 (羅漢像)



사진 13. 羅漢像 (건물내부좌측, 창방 상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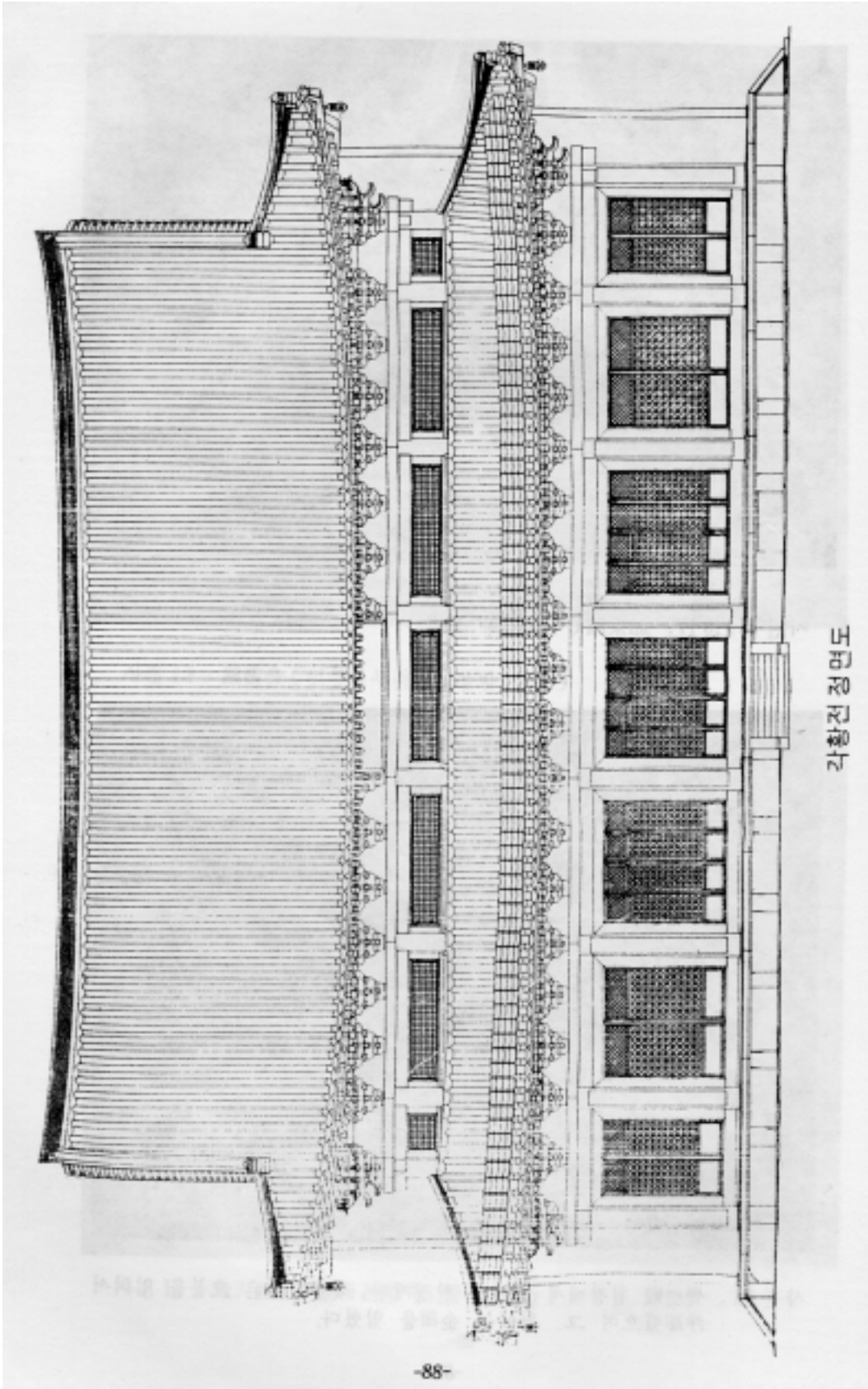
사진 14. 飛天像 (건물내부우측, 창방 상단)



사진 15, 16 17. 如來圖(건물내부 포벽)



사진 18. 覺皇殿 천정에서 발견된 천정개관, 꽃송이들은 호분을 입혀서 浮彫했으며 그 위에는 金蔎을 입혔다.



각황진 정면도